

우리 나라 구전동요의 몇가지 유형

우 광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문화를 찬란하게 발전시켜왔으며 이 과정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민족예술형식을 창조하여왔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267페이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 구전동요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풍부한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유형들을 개척하였다.

우리 나라 구전동요의 유형에는 무엇보다 먼저 아이들의 유희생활을 반영한 유희동요가 있다.

유희동요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리용하여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동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유희동요에는 동식물과 관련한 노래, 소꿉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 등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있다.

동식물과 관련한 유희동요에는 《잠자리를 잡으며》, 《나비잡으며》, 《반디불》, 《메뚜기》, 《매미》, 《거미》, 《소쩍새》, 《기러기》, 《쇠비름을 가지고 놀 때》, 《민들레씨를 불어날리며》, 소꿉놀이와 관련된 동요에는 《소꿉놀이》, 《세간놀이》, 《모래집 지으며》, 기타 놀이를 하면서 부른 동요에는 《숨박꼭질》, 《줄넘기기》, 《수박따기》, 《손벽치기》, 《호박따기》, 《팽이돌리기》, 《대문놀이》, 《연놀이》 등이 있다.

이 동요들은 아이들의 유희와 결부된 것으로서 정서적내용과 음악적형식, 운율성이 유희적성격에 따른다.

실례로 숨박꼭질과 관련한 동요는 유희의 행동성과 결부되어 내용과 운율조직이 되어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범장군 나간다
쥐새끼 물어도 꼼짝말고 있어라

(동요 《숨박꼭질》)

동요에서는 숨박꼭질놀이의 행동과 맞물려 행동운율이 보장되고있어 그에 따라 노래의 효과가 주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유희를 흥이 나고 경쾌하게 이끌어나간다.

유희동요는 아이들의 생활놀이과정에 불리워진것만큼 깊은 사상적내용을 담은것은 많지 못하지만 그들의 유희에 조흥적인것을 주고 경쾌감을 주며 그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된다.

유희동요 《술래잡기》도 유희적인 행동과 함께 부를수 있게 운율조직이 되어있다.

술개미 떴다
병아리 숨어라
에미날개밑에
애비다리밑에
꼭꼭 숨어라
나래미가 나왔다

동요는 유희행동과 놀이성격에 맞게 운율이 짧고 간결하면서도 부르기 쉽게 조직되어있다. 그것은 놀이에 노래를 섞어 흥이 나게 하기 위한 요구에서 나온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수박따기》노래나 미역감을 때 부른 유희동요 《물배 등등》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동요에서는 미역감은 물놀이의 행동률동에 맞게 운율과 선율적인것이 주어져있다. 물장구치는 행동률동에 맞게 동요는 《물배 등등 참배 등등》을 4·4조형식으로 고르롭게 반복해나갔다.

동요 《손벽치기》나 《줄넘기》도 유희행동과 결부되어 노래의 흐름새와 박자가 주어

지고 그 놀이과정에 자연히 노래가 불리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말그대로 놀이를 흥취나게 이끌어나가면서 행동정서적통일을 보장하고있다.

유희동요가운데서 특히 아이들의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과 감수, 그에 대한 정서적 표현을 행동운율적으로 생동하게 제시하거나 기발하고 참신하게 표현한것들이 제일 많이 불리워졌다. 이로부터 유희동요는 놀이과정에 아이들의 생활정서를 깊게 하고 생활인식과 관찰력을 높여주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실례로 동요 《팽이돌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팽글팽글 잘도 돈다
요리조리 잘도 돈다
고초먹고 땀—땀

동요에서는 팽이가 도는 모양과 음향, 정서상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동심적으로 기지있게 형상화하였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아이들의 생활적체험이 독특하고 인상적이며 생활적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유희동요에는 아이들의 지향세계를 생동하게 노래한것들도 적지 않다.

《연노래》가 대표적이다. 연을 띄우면서 술개같이 구름넘어 하늘높이 오르라는 구절에는 어린이들의 끝없는 지향세계, 연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려는 희망의 세계가 비껴있다.

특히 생활적인 유희동요는 아이들의 체험세계가 매우 깊고 인상적이며 진실하고 생동하다.

실례로 다람쥐를 잡으면서 부른 동요를 들 수 있다.

다람다람 손비벼라
찬가잠물에 흰쌀밥주마

다람쥐를 잡는 아이들의 생활정서와 체험세계가 동심에 맞게 드러나있는 동요의 형

상은 아이들만이 부를수 있는 참신하고 인상적인것이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불려온 특색있는 동요의 하나인 유희동요들에는 명랑하고 천진한 어린이들의 정신세계가 생동하게 반영되어있으며 놀이의 종류에 따라 그 형상도 각이하였다.

우리 나라 구전동요의 류형에는 다음으로 지능동요가 있다.

지능동요는 어린이들의 지적능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창작되고 어린이들속에서 불리워진 노래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지능동요에는 발음훈련동요, 글짓기동요, 그림그리기동요 등이 있다.

발음훈련동요는 지능동요의 하나로서 어린이들이 우리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는 노래이다.

《김별감》, 《말말뚜기》, 《하늬바람》, 《풋콩가지》, 《봄보리밥》, 《평양 닭알》, 《호도누새》, 《너냐 나냐》 등은 그 실례들이다.

저건너 김서방네
지붕말레 풋콩가지
간 풋콩가지나
안간 풋콩가지나

(평양지방의 동요 《풋콩가지》)

김서방네 말말뚜기는
말 맬 말말뚜긴가
말 못맬 말말뚜긴가

(평안도 성천지방의 동요 《말말뚜기》)

우리 말에서 받침이 계속되는 단어들은 비교적 발음하기가 힘들다. 특히 《안간 풋콩가지》, 《말 맬 말말뚜기》 등과 같은 단어들은 같은 받침들이 련이어 붙어있으므로 발음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한창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동요는 우리 말 발음을 빨리 익숙할수 있게 한다.

우의 동요들은 억양과 발음훈련을 기본 목적으로 한데로부터 그 내용보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련결시키는데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글짓기동요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노래로서 어휘 습득과 사물현상에 대한 형상능력을 높이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글짓기동요로는 《한글노래》, 《천자풀이》, 《꼬리따기》, 《똥구랑땡》 등이 있다.

《한글노래》와 《천자풀이》는 어린이들이 배운 글을 익히기 위하여 모래판이나 땅에다 글자를 써보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가까 가다가 거겨 걸어서
고교 고기잡아 구구 국끓여서
나냐 나하고 너너 너하고
노뇨 노나먹자

(충청도 공주지방의 동요 《한글노래》)

《꼬리따기》는 2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빙 둘러앉아 글자와 단어의 뜻에 맞게 글을 지어나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여기에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는 방법, 마지막글자를 따는 방법, 단어의 의미에 맞게 글을 짓는 방법들이 있다.

《똥구랑땡》은 어린이들이 매개 동물의 생태적특성에 맞게 글을 지으면서 부른 노래이다.

까마귀란놈은 몸피가 검으니
구들쟁이로 돌려라
똥구랑땡 똥구랑땡
얼싸절싸 잘 넘어간다
똥구랑땡 똥구랑땡

벼룩이란놈은 뛰기를 잘하니
뽕뽕기선수로 돌려라

... ...

와새란놈은 다리가 기니
월천군으로 돌려라

... ...

(남포지방의 동요 《똥구랑땡》)

여러 동물들의 모양과 움직임을 반영한 동요들은 어린이들에게 주위에서 살고있는 새나 짐짐승들의 생태적특성을 옹계 인식시키는데서 효과적이었다.

그림그리기동요 역시 어린이들의 지능제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2자 하나에 점을 먹어라
쫑긋쫑긋 오리가 똥드래

4자 하나에 점을 먹어라
쫑긋쫑긋 생쥐가 똥드래

3자 둘에 콩알 먹어라
쫑긋쫑긋 다람쥐 똥드래

(평양지방의 동요 《그림그리며》)

6자가 점을 먹었더니
쫑긋쫑긋 토끼가 되더라

(량강도지방의 동요 《토끼그리며》)

이 동요들은 7~10살의 어린이들이 그림그리기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종이나 땅우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이러한 동요들을 부르면서 2자로는 오리, 4자로는 쥐, 3자로는 다람쥐, 6자로는 토끼 등 수자의 모양을 리용하여 여러 동물이나 기타 사물을 그렸다. 이 놀이는 글자의 모양과 류사한 동물, 사물들의 모양을 그림으로 형상하는 놀이로서 어린이들의 지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능동요들은 대체로 어휘, 수자, 동물 등과 관련되어있으며 그 양상은 밝고 명랑하다.

지능동요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게 하고 글짓기를 잘하도록 하

며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 구전동요의 류형에는 다음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의 불우한 생활처지와 체험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여주는 사상적경향성이 짙은 동요와 함께 지주, 량반놈들을 정면으로 풍자조소한 풍자동요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풍자동요로는 《서울량반 죽었다》, 《중중 까까중》, 《중대가리》, 《지주침지》, 《배똥똥이 땡똥》, 《량반량반》 등을 들 수 있다.

동요 《서울량반 죽었다》에서는 서울량반이 죽은데 대한 아이들의 통쾌한 웃음이 회화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울려나온다. 동요는 서울량반이 죽었다는 통쾌한 《사변》에 시적계기와 정서적여운을 뭉으로써 풍자해학적인 웃음을 깔아주고 서정적형상을 풀이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동요는 내용전개도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제문적풀이형식으로 신랄하고 예리하게 해나갔다. 동요에서 서울량반이 로망하여 어린애처럼 《부뚜막에 앉아서/ 밥투정하다가 죽었다》는것과 행상할 사람도 없어 《지게행상》했다는것,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 주인집 《암개수개 울》더라는것 등은 아이들의 기지있는 조롱과 신랄한 풍자야유이다.

그렇게도 못살게 굴던 량반놈이 깨고소하게 죽은것에 대한 풍자는 이 동요외에도 적지 않은 동요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탕건에 콩닥다가 그만 불에 타서 죽었다는것을 기지있게 풍자한 동요를 들수 있다.

착취자, 놀고먹는자들을 풍자조소한 동요는 아이들이 부른 노래에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령역을 이룬다.

장사 침지의 욕심을 알미운 참새에 비유하여 풍자한 동요, 량반과 중들을 조롱한 동요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동요들에는 착취자, 욕심많은자들에 대한 정면풍자가 신랄하게 주어졌으며 조롱과 야유, 해학 등 풍자적웃음이 로골적으로 드러나있다.

동요 《량반량반》에서 정면적인 비판과 풍자가 보다 신랄하게 드러나있다면 《중중 까까중》, 《중을 놀리며》에서는 조롱과 야유가 은유적으로 드러나있다.

동요 《중중 까까중》, 《중을 놀리며》들에는 허망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은근히 착취하는 또 하나의 착취자—중들에 대한 아이들의 신랄한 조롱과 해학이 그려져 있다. 막 짝은 번대머리를 하고 다니는 중들을 《까까중》이라고 조롱하면서 야유하고 있으며 꽃다운 나이의 젊은 녀승이 뽀뽀 짝은 머리에 송낙을 쓰고 등에는 배낭까지 지고다니는 우스운 꼴을 조롱하고있다.

풍자동요들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에 대한 신랄하고 통쾌한 풍자가 아이들의 기발한 착안과 관찰, 기지적인 표현과 동심적인 발랄함으로 생동하고 실감있게 주어져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구전동요는 오랜 역사적기간 그 형식과 형상수준이 높아지고 이후 동요문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